

건설업체의 건축사법 23조 개정 추진은 언어 도단이다

Construction Company's Reforms Demand for
Architect Law Article 23 is beyond Expression

李鍾寬/본 협회 홍보위원장

by Lee Chong-Kwan

황희 정승이 싸움을 하는 두 노비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을 다 옳다고 했다. 이를 본 부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부인말도 옳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쪽 말을 다 들어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설계권 부여방침」계획은 황희 정승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당국의 즉흥적 처신의 일례라 여겨진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편승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만을 주장하는 건설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성급한 결정을 하려는 당국에게 한 노비의 심정으로 황희 정승의 자질을 감히 요구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국내 건축·건설 시장이 완전 개방시대를 맞게 되어 우리 건축·건설업체들이 안방에서까지 세계 유수의 건축·건설업체들과 완전경쟁을 치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국내 건축·건설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은 중요한 당면 과제다. 또한 이러한 절박한 과제에 양계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과정에 일방의 주장만 반영되어 결론이 도출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축용역업 진출 규제완화」국민제안 건은 소외된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사 자격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게 건축설계

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이 제안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경쟁력 배양, 솔직히 표현해서 이윤추구라는 명목아래 건축사의 영역을 넘보려는 대형 건설업체의 자본논리가 내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법률 개정의 위법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건축계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대형 건설회사에 설계권만 부여하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의 위험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건축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결정해 버릴 일회적 경제행위가 아니라 예술 행위로서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국내 건축·건설시장 상황은 태동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60, 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건축·건설의 발전은 기획, 설계, 건축감리 등 소프트웨어(Software)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 시공부분인 하드웨어(Hardware)에만 치중되어 발전해 왔다. 이 결과 우리의 건축·건설문화는 소프트웨어에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단순 시공업체인 하드웨어에 규정받는 역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행주대교 붕괴, 지하철 현장에서의 빈번한 사고 등 부실시공의 근원적 이유는 건축·건설계의 이런 왜곡된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건축설계권을

“

건설 당국 그리고 건설업계에 당부한다. 붉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르게 보인다.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결국 적녹색맹과 다를 바 없다.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황희 정승의 지혜가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은 편견의 무서움을 미리 간파한 혜안 때문이 아닐까?

”

건설업자에게 주면 건축·건설구조의 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실시공의 원인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 분야의 낙후성을 건축사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건축설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자본력이 있는 건설업체에 건축설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원에는 현 단계 건축설계 후진성의 책임을 모두 건축사에게 넘기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한 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토양의 여부에 달려 있다. 박토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건축사 본연의 업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막아온 건축주 및 건축업자의 횡포를 간과하고 설계의 후진성을 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설계권을 건설업체에게 주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즉흥적 발상에 집착하기 전에 왜곡된 현재의 건축설계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이윤 추구)에 급급한 법령개정은 장기적인 대외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건설 선진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건축설계, 시공, 감리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 감리 등 소프트웨어부분이 하드웨어를 규정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벡텔, 파슨스그룹 등은 기술용역을 주업무로 하여 시공까지 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분야는 대부분 별도 운영하여 설계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건축부조리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고양시키려는 합리적인 사업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소프트웨어가 자본의 사슬에 매여 하드웨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설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거니와 장기적으로 기술용역업의 경쟁력 악화를 자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은 예술의 한 형태란 사실이다.

건축은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문화와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이다. 불국사, 남대문, 덕수궁 등 역사적 건축물을 통해 우리는 선조의 정신세계를 유추하고, 삶의 질을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단순한 기능적 측면으로만 보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불국사가 기능만 있을 뿐 예술미가 없다면 지금껏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선조의 정신과 손길이 묻어 있는 건축은 민족 문화의 한 부분인 것이다. 더구나 국경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건축의 문화적 기능을 무시하고 집짓는 기능적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건설 당국 그리고 건설업계에 당부한다.

붉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르게 보인다.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결국 적녹색맹과 다를 바 없다.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황희 정승의 지혜가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은 편견의 무서움을 미리 간파한 혜안 때문이 아닐까?